

시장 선거 '전초전'... 오세훈·정원오 수위 높이는 공방

국힘, 정원오 맹공... 폐기물 업체 특혜·여수 힐링센터 의혹 제기 민주 "거짓 선동·가짜뉴스" 반박... 오세훈 한강버스·따릉이 비판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연일 공격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 패리기에 집중했다.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는 정 구청장이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들과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며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레기 업체들이 대가성 돈을 건

넛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며 "설령 범람을 교묘히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액의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할량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정 구청장의 전남 여수 농지 인근 성동구 휴양시설을 두고 공세를 취했던 안철수 의원 역시 정 구청장의 '국민 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라는 주장이 석연치 않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SNS에 "정 구청장의 고향이자 농지가 있는 여수의 성동힐링센터를 두고, 정 구청장은 주민의 결정이라고 한다. 전국 수백 개 폐교를 전수조사한 후 후보지를 좁히고, 국민 1만여 명의 투표로 여수가 결정됐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당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성동구 수련원 부지 선정 온라인 투표 결과 안내'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 진행됐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안 의원은 "그런데 6개월 전인 2015년 2월, 정 구청장은 자신의 명의의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수련원)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며 "매입 토지와 건물의 구체적인 가격까지 산정한 것을 보니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계획(안)은 구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됐다. 2015년 3월 2일 성동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 모 기획재정국장이 여수를 지목하며 힐링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3월 3일 본회의에서 박 모 구의원이 재정 형편도

열악한데 왜 구청장의 고향인 여수에 건설하느냐, 낙향해 여수시장을 하라는 항의에도 안건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연일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하라"고 꼬아붙였다.

채 의원은 "안 의원님께서 직접 SNS에 올린 그 자료 사진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며 "구의회 제출 자료에는 여수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 부지 매입 계획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월

은 당시 주민투표에 부처진 주요 후보 지역이었다"며 "본인이 올린 자료에 바로 위에 있는 '영월'은 정말 못 보신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여부 부분만 강조하신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한 생활폐기물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부터 똑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는 해당 4곳이 전부이며, 관련 수의계약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또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맹방 네거티브 공세는 서울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 패리기에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 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 왜곡죄' 관련 오 시장 발언을 반박하며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법이 아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로부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이제

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다. 사법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냐"라고 말한 데 대해 "법을 지키고 제대로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독재인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독재인가"라고 반문하고 "오 시장은 거짓된 분노로 실제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한강버스 안전논란과 공공 자전거 '따릉이' 보안 논란을 두고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을 정면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과와 속도를 앞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방식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한강버스를 둘러싼 끊임없는 안전 논란과 운영 차질, 그리고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보안 푼림 사태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이는 철저한 검증보다 '보여주기식 치적'을 우선해 온 시정 운영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TK통합 찬성 돌아선 국힘... 민주 "반대할 땐 언제고..."

정청래 "대구·경북 주민에 싹싹 빌고 제안하라" 송언석 "TK의원 총의 따른 것... 법안 통과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겨냥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년에 5조씩 20조 투

입하겠다. 각종 특례 조항을 적용시켜 여러 가지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해당 지역 의원을 투표를 통해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조속

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단지 겉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주호영 의원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고, 대구·경북 시민도민들께 먼저 싹싹 빌고 나서 민주당에게 제안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장동혁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이번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며 "30년 이상을 대구·경북을 정치적으로 독점해 온 국민의힘의 대구·경북에 대한 애정, 주민들에 대한 마음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가슴 아프게 목도한 며칠 간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일각과 대구 언론 일각에서 TK 패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어떻게 대구·경북 통합을 법사위에서 무산, TK 패싱을 들먹이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건냐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대구·경북을 민주당이 패싱한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대전 이장우 시장, 김태흠을 정치적으로 독점해 온 국민의힘의 대구·경북에 대한 애정, 주민들에 대한 마음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가슴 아프게 목도한 며칠 간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일각과 대구 언론 일각에서 TK 패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

를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뒤늦게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찬성 의견을 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조속한 법사

위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 지역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인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추진과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바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되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